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중심으로

이 은 경

이 양 희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특수한 문화와 정서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추출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아동용 정서경험척도를 개발하여 그 구성된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차적으로 정서 용어를 선정하기 위하여 예비연구가 실시되었으며, 예비연구에서 선정된 141개의 용어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만 10~12세 남녀 초등학교생 724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한국 아동들이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용어 48개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회귀분석을 통하여 구해진 R^2 가 1에 가까운 변수로 30개의 용어가 의미상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분석에서 탈락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로 2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최종 57개의 정서 용어들로 정서경험척도를 구성하였다. 2주 간격으로 실시한 정서경험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4(Pearson's r)였으며,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각 하위 요인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76, .83으로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57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98$ 이었으며,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각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97, .98로서 심리측정적으로 매우 양호한 구성타당도를 나타냈다. 소아우울척도(K-CDD)와의 상관분석 결과, 긍정적 정서와는 -.74, 부정적 정서와는 .68의 양호한 상관을 보여 적절한 공인 타당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정서경험에서의 성별 및 학년별 차이를 알아 본 결과,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성별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였으며($F=5.63, p<.05, F=14.69, p<.001$), 학년차이는 부정적 정서만이 유의미하였다($F=9.31, p<.01$).

주요어 :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주관적 안녕, 정서경험, 탐색적 요인분석

일상에서 기쁨, 즐거움, 흥미, 만족, 사랑 등
과 같은 긍정적 정서(positive emotions)의 경
험들은 개인들이 환경에 몰두하고 진화적으로
로 적응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자극하며, 이

러한 긍정적 정서 상태가 지속하는 동안에 개인의 자원들은 증가한다. 따라서 긍정적 정서의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좀 더 창조적이고 지적이며, 적응적이고 사회적으로 원만한, 그리고 건강한 개인으로 발달하게 된다 (Fredrickson, 2002). 이는 양육자로부터 가장 일관된 사랑을 경험하여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아동들이 다른 또래들에 비해 더 끊임없이 풍부한 자원으로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연구들(Arend, Gove, & Sroufe, 1979; Matas, Arend, & Sroufe, 1978)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애착과 관련된 지적인 능력은 성인기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안정적으로 애착된 성인들은 호기심이 더 많으며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인다(Mikulincer, 1997). 또한 긍정적 기분(mood)과 수학 성적의 관계(Bryan & Bryan, 1991), 학습에서의 긍정적 기분의 효과(Bryan, Mathur, & Sullivan, 1996), 아동의 정서적 상태, 표현행동, 그리고 학습(Masters, Barden, & Ford, 1979)이라는 주제로 취학 전 아동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들에서,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상태에 비해 긍정적 상태에서 유발된 지적인 자원들이 더 빠른 학습과 더 향상된 지적인 수행능력을 야기했다.

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측면에서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서 인간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체성 확립이라는 발달상의 과업을 달성하여야 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적응함과

동시에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밖으로 표출되기도 한다(조수철, 남민, 1994). 따라서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을 장려하여 유연하고 적응적인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으로 발달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삶의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문제를 평가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과 관련하여 건강문제와 생명의 위험을 야기하는 부정적 정서가 연구자들 대부분의 관심을 차지하였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정서는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인간 내부에 있는 긍정적인 자질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돕는 긍정적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은 Seligman, Csikszentmihalyi, Diener, Ryff, Masten 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안녕, 낙관, 희망, 삶의 질, 만족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이정미, 이양희, 2005). 이러한 최근의 동향과 더불어 긍정적 정서가 최적의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긍정적 심리학 안에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Fredrickson, 2002).

특히, 이 분야에서 Diener와 그의 동료들(Diener, 1984; Diener & Diener, 1995;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Emmons & Diener, 1986)은 과거 철학자들이 주장해 온 바와 맥을 같이 하면서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선은 '행복'임을 강조한다.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데, 이러한 관점에서 삶의 질이란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을 의미한다.

주관적 안녕은 삶과 관련된 정서적 경험과 인지적 평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Diener, 1984; Kashdan, 2004; Myers & Diener, 1995). 정서적 요인은 전반적인 행복감의 체험이며, 인지적 요인은 삶의 만족으로서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의미한다.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 지금은 주관적 안녕의 구인이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의 세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3요소 모델(Tripartite Model)이 받아들여지고 있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Diener, 1984; Emmons & Diener, 1985; 이정미, 이양희, 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한국 초등학교 3~6학년 아동들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K-MSLSS)를 개발하고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확인한 최근 연구(이정미, 이양희, 2005)는 인지적인 평가로서 주관적 안녕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을 아동까지 확대시켰다. 이와 함께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의 다른 구인으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삶의 정서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서 심리학은 여러 심리학 분야 중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학문분야이다. 정서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Darwin은 정서를 생물학적 적응기제로 보았으며, 생득적으로 유형화된 얼굴표정의 피드백 결과로 아동은 점차 분화된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동은 기본적인 수준의 정서 용어으로써 정서를 개념화하기 시작하다가, 정서적 상황들이 복잡해짐에 따라 기본 정서에서 다양한 정서들로 분화시켜 나가게 된다(박찬옥, 1990).

정서에 대한 연구는 정서(emotion)와 기분(mood)을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정서와 기분은 지속기간, 강도, 확산성에 의해 구분된다(Frijda, 1986; Plutchik, 2004에서 재인용). 최근에 수행된 기분에 관한 문헌연구(Gendolla, 2000)에서는 기분을 특정 대상에 제한되지 않으며 두루 퍼져 있고 오래 지속되는 상태라고 기술하고 있다. 기분은 명백한 자극이나 대상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으며 이유도 모르는 채 경험될 수 있지만 정서는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지속기간이 짧고 강도가 세며 특정대상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최근에 기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기분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서 연구에서 기본 정서를 찾는 것과 비슷하게 기분의 세부요소를 측정하고 있다(Russell, 1980; Russell & Ridgeway, 1983; Watson & Clark, 1991; Watson, Clark, & Tellegen, 1988; Watson & Tellegen, 1985).

기본 정서를 이야기 하는 연구자들은 모든 문화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서로 분노, 두려움, 기쁨, 슬픔, 놀람 등을 들고 있다(Elkman, 1992; Plutchik, 2004). Izard는 1971년에 얼굴 표정을 토대로 기본 정서를 흥미, 기쁨, 놀라움, 고통, 분노, 혐오, 경멸, 수치, 죄책감, 두려움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밖의 다른 정서는 기본 정서가 조합된 것이라고 가정하였다(Plutchik, 2004). 우리나라에서는 김경희(1996, 1997)가 기본 정서를 행동과 표현을 기준으로 흥미, 기쁨, 놀람, 슬픔, 우울, 분노, 혐오, 공

포-불안, 수줍음,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사랑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은 정서에 대한 연구가 다루는 세부적인 정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정서체험의 일부만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Watson & Clark, 1984).

우리가 경험하는 정서(experienced emotion)는 3가지 형태로 표출된다(Parkinson, 1995: 이주일, 1998에서 재인용). 첫째는 생리적 반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유기체가 적응적이며 항상성 유지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들이다. 두 번째는 얼굴 표정, 신체 움직임, 자세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불수의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이다. 세 번째는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평가하여 인지적 해석과정이 일어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언어를 통한 자기보고나 목표 지향적인 반응 행동 들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서 용어들 간의 유사성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로 자기 보고를 이용한 정서 측정과 관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두 가지 정서 분류 방식이 보편적으로 도출되는 차원으로 여겨진다고 한다(이주일, 1998; 홍창희, 2003). 즉 우리가 많은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차원은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와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 차원, 그리고 유쾌(pleasure) 정서 및 각성(arousal) 정서 차원으로 도출된다. 이 중에서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차원은 정서의 특성(emotional trait)을 측정하는 반면에, 유쾌-각성 정서 차원은 정서상태(emotional state)를 측정하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이주일, 1998; Watson 등, 1988).

Watson과 Tellegen(1985)은 두 가지 다른 접근의 정서 분류 차원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분류방식에 의해 달리 사용되어온 정서 차원들이 원형상에서 구별되는 차원으로 배치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두 분류방법 중에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나누는 것이 일상적인 정서체험을 더 많이 설명해준다고 보고, 계속해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세부 차원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서경험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자기-보고식 척도 중의 하나는 Watson 등(1988)이 개발한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이다. Watson 등(1988)은 간편하고 경제적인 정서경험척도를 제작할 목적으로, 정서어휘집에서 내용분류와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20개 정서범주에 각 범주 당 3개 단어씩 총 60개의 목록을 제시한 연구(Zevon & Tellegen, 1982)에서 보고한 정서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목록에서 수집된 자료의 요인분석을 통해 비교적 순수하게 긍정적 정서(PA) 및 부정적 정서(NA)를 측정한다고 생각되는 20개 용어를 선정하여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그 다음 이 20 문항 척도를 시간 구조를 달리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척도들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높았고 서로 독립적이었으며, 2개월의 간격 후에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PANAS의 신뢰도 및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졌고(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Killgore, 2000; Kvaal & Patodia, 2000; Melvin & Molloy, 2000), 국내에서도 몇몇 학자들(민경환, 김지현, 황석현, 장승민, 2000; 임전옥, 장성숙, 2003)이 여러 분야에서

정서 연구를 위해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정서 용어를 가지고 정서경험척도를 개발한 선행연구자들(이주일, 1998; 홍창희, 2004)의 노력이 있었다. 홍창희(2004)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구조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두 차원(정적, 부적)을 포함한 정서경험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덕웅과 강혜자(2000)가 보고한 우리말의 정서적질성과 정서경험빈도의 평가(7점 평정척도)에서 각각 5.0, 4.0 점 이상으로 평정된 정서단어 143개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정적 및 부적 정서차원의 단어를 선정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에게 예비단어목록을 제시하여 각 단어의 쾌-불쾌의 정도를 7점 척도(1: 매우 불쾌 ~ 7: 매우 유쾌)로 평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로 정적 정서단어는 4.50 이상에, 부적 정서단어는 3.50 이하에 평정된 단어 각각 30개, 33개의 총 63개 단어를 일차적으로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63개 단어를 가지고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하여 요인 분석한 후 정적 및 부적 정서단어 각각 11개를 선정하여 총 22개 문항의 정서경험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척도 개발의 대상이 성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아동기가 건강한 태도, 행동, 적응, 문제의 예방을 위한 최적의 시간이며, 아동의 삶과 그 이후의 청소년, 성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방적인 노력은 중요하다(Roberts, Brown, Johnson, & Reinke, 2002). 앞으로 아동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적인 힘을 키워주는 긍정

적 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이 아동을 주제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특수한 문화와 정서에서 쓰이는 용어를 추출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아동용 정서경험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그 심리측정적 속성을 분석하여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요인구조는 어떠한가?

둘째,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는 어떠한가?

셋째, 한국 아동의 정서경험에 있어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성별 및 연령별 차이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비연구와 본 연구의 과정을 거쳤다.

예비연구

방 법

아동용 정서경험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 아동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정서 용어들을 직접 선정할 목적으로 예비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대상

여러 학자들(Harter, 1982; Heubner, 1991a, 1994; Waters, Salmon, Wake, Wright, & Hesketh,

2001: 이정미, 이양희, 2005에서 재인용)에 의해 자기보고(self-report)가 가능한 연령으로 초등학교 3~4학년 만 9세 이상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아동이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상관없이 둘 이상의 정서가 혼합되어 경험되는 혼합정서(mixed emotion)를 이해하려면, 정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정서 이해에 영향을 주는 인지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 또한 있다(Harter, 1977, 1986; Harter & Buddin, 1987). Harter와 Buddin(1987)에 의하면 개념적으로 상이한 차원(dimension)을 통합하는 것은 아동에게 어려운 과제이므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통합해야 하는 혼합정서의 이해는 어렵다. 그러므로 인지 발달적 기초가 이루어진 10세 이후가 되어야 혼합 정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만 10~12세의 아동으로 예비연구에서는 4, 5, 6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4학년 아동들이 연구자가 선정한 정서 용어목록에서 뜻을 모르고 있는 단어의 수가 5, 6학년 아동들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5, 6학년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비연구에서는 정서 용어 예비목록 376개의 단어를 가지고 서울에 위치한 K초등학교와 Y초등학교 4, 5, 6학년 만 1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불쾌-유쾌 평정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39명, 5학년 75명, 6학년 101명으로 최종적으로 총 215명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아동의 성별 분포는 남아는 96명(44.7%), 여아는 119명(55.3%)이었으며, 연령은 만10세가 77명(35.8%), 만11세가 84명(39.1%), 만 12세가 54명(25.1%)이었다.

연구절차

1) 정서 용어의 수집

지금까지 정서의 구조를 밝히려는 연구들과 함께 한국어 정서 용어들의 총집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연구들은 대체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정서 용어들을 아동에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들이 다양한 정서들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정서 용어들은 성인에 비해 덜 다양하고 덜 분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는 정서 용어들을 선정하여 목록을 만드는 것이 본 연구에서 우선시 되었고, 아동들이 자신들의 수준에서 스스로 선택한 단어들을 도구 개발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한덕웅과 강혜자(2000)는 한국어 용어의 총집을 마련한 연구에서 선행연구들에서 볼 수 있는 제한점들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Averill(1975)과 안신호, 이승혜와 권오식(1993)의 연구에서는 사전에 실린 어휘들 가운데서 정서를 조금이라도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단어, 구 등을 추출하여 정서 용어들을 선정하였다.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정서 용어들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만영, 이홍철, 1990)에서는 대학생들이 정서나 감정 상태를 기술할 때 사용하는 정서 용어들을 자유반응으로 얻어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경우에는 정서를 나타내기 위하

여 언어로 제시할 수 있는 용어들의 수가 적어서 어휘들의 전집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아동용 정서 용어의 총집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제한점들을 모두 시정하여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정서 용어들을 선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인면서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기 위한 정서 용어들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용 사전에서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동아 연세초등국어사전(2005)을 기초로 정서 용어를 선정하였다. 이 사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 전과목 교과서와 초등학생용 도서로 이루어진 '기초학습용 말뭉치'에서 가려 뽑은 낱말들 3만 5000여 개의 단어가 실려 있다. 이 사전을 선택한 이유는 교과서에 나오는 거의 모든 낱말과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중요 낱말과 잘 쓰이는 구, 속담, 관용구 등을 모두 다루었기 때문이며, 가장 손쉽게 그러나 폭넓은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여러 학자들의 정서에 대한 정의와 정서의 사전적 의미를 염두하고 모든 단어의 뜻풀이와 예문을 참고하여 603개의 단어를 일차적으로 선정하였다.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를 진화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직접 요구되는 적응적인 주관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 경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James(1992: 홍창희, 2003에서 재인용)의 정의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리고 동아 연세초등국어사전(2005)에 나와 있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정서란 여러 가지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방향과 흐름을 이루게 된 감정이며, 기쁨·노여움·슬픔·사랑·미움과 같이 본능적으로 나타내는 감정이다.

Mayer, Salovey, Kaufman과 Blainey(1991)는 자기 보고에 의해 정서경험을 측정하는 척도들에서 형용사들이 혼동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서 단어들이 신체적인 영역과 정서적인 영역 및 인지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졸리운, 피곤한, 이완된' 등의 정서는 신체적인 영역이고, '적극적인, 주의 깊은, 자랑스러운' 등은 인지적인 영역이라고 보았다. 느낌과 관련된 정서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것들로는 '행복한, 즐거운, 슬픈, 두려운' 등이었다. 본 연구자들도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선정하는데 이러한 단어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졸립다, 이완되다, 고단하다' 등과 같이 신체상태만을 나타내는 단어들, '아름답다, 조용하다' 등과 같이 상황기질을 나타내는 단어들, 그리고 '쌀쌀맞다, 온화하다' 등과 같은 성격과 행동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단어들은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2)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정서 용어로 적합한 단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자에 의한 주관적 선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한덕웅, 강혜자, 2000)에서 정서 용어로 선정한 단어 834개를 모두 검토하였으며, Watson과 Tellegen(1985)이 사용한 60개의 단어들도 검토하여 603개의 단어를 추출하는데 사용하였다. 일차적으로 추출된 정서 용어로 603개의 단어는 그 수가 너무 많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

라서 정서 용어의 예비목록에 포함될 용어의 수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 용어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존중했다.

3) 예비목록 구성

603개의 예비단어들을 가지고 본 연구자들은 제외하고 아동발달전문가와 4명의 대학원생들을 포함하여 5명이 판단할 때 3명 이상이 정서 용어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한 단어들을 가려내어 376개의 단어가 선정되었다. 정서 용어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단어들 중에서 한덕웅과 강혜자(2000)의 연구에서 보고한 정서 적절성 평정(7점 평정척도)에서 5.0이상 되는 단어로 ‘가련하다, 감미롭다, 미련을 두다, 열정적이다, 열중하다, 가엽다, 고맙다, 쾌심하다, 열렬하다, 힘겹다’ 등 30개의 단어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PANAS(Watson 등, 1988)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단어 20개 중에서 정서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된 ‘강한, 단호한, 원기 왕성한, 적대적인, 주의 깊은, 활기찬’의 5개 단어들은 제외되었다. 이 단어들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PANAS 정서 단어들이 정서 단어로서 적절한지를 조사한 연구(홍창희, 2003)에서 적절성 평가치가(5점 평정척도) 3.0 미만인 단어들과 비슷하다. 최종적으로 모든 단어들의 서술구조를 통일하는 과정을 거쳐서 376개의 정서 용어 예비목록이 구성되었다.

4) 예비조사

선행연구(한덕웅, 강혜자, 2000; Averill, 1975)에서는 정서 용어의 총목록을 구성한 후에 정서 용어의 적절성과 일상생활에서의 정서

경험 빈도와 친숙한 정도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Averill(1975)의 연구에서 모든 학생들이 친숙하다고 평정한 단어는 전체 예비목록 속의 단어 중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정서단어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초등국어사전에 실린 단어를 기초로 정서 용어의 목록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아동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적이 없거나 아예 단어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뜻 모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Diener와 Larsen이 1993년에 정서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누어 측정하기 보다는 유쾌함-불쾌함의 포괄적 수준에서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공포와 같은 한 부정적 정서가 발생하는 상황은 흔히 분노와 슬픔 등 다른 정서를 공발생시키고 개인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부정적 정서를 동시에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훈구, 1997). 이러한 제안에 따라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모두 포함하는 정서경험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불쾌-유쾌를 평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한 사람이 모든 단어에 응답하는 것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각 피험자는 147개 또는 149개 단어에만 응답하도록 한 선행연구(안신호 등, 1993)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본 조사에서도 초등학생 한 명이 376개의 단어를 모두 평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한 명이 125개 또는 126개 단어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모든 정서단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다음 가나다순이 끝고루 섞이게 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반응의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개의 단어(불만스럽다, 재미있다)를 반복 제시함으로써 한 명의 아동은 129개 단어에 평정했다.

각 단어가 나타내는 기분이나 느낌이 언짢거나 싫으면 부정적인 의미로 “매우 불쾌하다”(1점), “불쾌하다”(2점)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기분이나 느낌이 즐겁고 기분이 좋다면 긍정적인 의미로 “유쾌하다”(3점), “매우 유쾌하다”(4점)로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4, 5, 6학년 29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회수된 298부 응답 자료에서 반응의 일관성을 알아보는 지수(2개 중복)에서 전후 2점 이상 차이가 나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215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5) 예비조사결과

불쾌-유쾌의 평정결과를 기초로 정서경험척도의 목록을 구성하기 전에, 각 단어의 ‘뜻모름’에 표시한 수를 기초로 5, 6학년 아동이 한 명이라도 뜻을 모른다고 표시한 214개의 단어가 제외되었다. 그리고 불쾌-유쾌에 속하지 않는 단어(2.0~3.0) 21개를 제외하고, 불쾌하다에 속하는 정서단어는 2.0 미만, 유쾌하다에 속하는 정서단어는 3.0 이상에 평정된 단어 각각 95개, 46개로 총 141개 단어를 선정하였다. 이는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들 보다는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들 2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선행연구들(안신호 등, 1993; 이주일, 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정서 용어 141개를 정서경험척도 개발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본 연구는 예비연구에서 선정된 정서 용어를 가지고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경험척도를 개발하고 그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10~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의 M구와 Y구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와 경기도 지역의 GY시, GM시, H시, S시, GJ시에서 각각 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5학년 396명, 6학년 328명으로 최종적으로 724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남아는 345명으로 전체의 47.7%였고, 여아는 379명으로 전체의 52.3%였으며, 평균연령은 11.1세($SD=0.7$)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공인타당도를 얻기 위하여 경기도 S시에 거주하는 만 10~12세 94명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5학년 47명, 6학년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징

성별	학년		전체 (백분율)
	5학년	6학년	
남	188	157	345(47.7)
여	208	171	379(52.3)
전체 (백분율)	396 (54.6)	328 (45.2)	724

47명, 남아는 46명으로 전체의 48.9%, 여아는 48명으로 전체의 51.1%였으며, 평균연령은 11.1세($SD=0.8$)였다.

측정도구

1) 척도개발을 위한 단어목록

본 연구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정서경험척도 개발을 위하여 예비 연구에서 얻어진 141개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가 이 중 두 개 단어(기분좋다, 걱정스럽다)를 선정하여 앞뒤 반복 제시함으로써 반응의 일관성을 알아보는 지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43개의 단어목록을 작성하였다. 각 단어에 대하여 요즈음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정도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2) 한국판 소아우울척도(K-CDI)

한국판 소아우울척도는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Kovacs의 소아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번안하여 한국 아동들 4~6학년을 대상으로 타당화를 마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아동용 우울척도이다. 지난 2주일 동안의 자신의 기분상태를 묻는 27개의 문항에 대하여 0점, 1점, 2점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우울은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경험으로 긍정적 정서경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동은 우울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할 것으로, 부정적 정서경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동은 우울척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서경험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토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준거도구로 선택하였다.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정서 용어 목록에 제시된 단어에 대한 이해와 질문지 구성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5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2005년 9월 14일에 직접 방문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담임교사에 의해 직접 실시되었고, 대략 30분정도 소요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질문지의 구성과 내용이 아동들에게 용이하여 문안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조사는 2005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10~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각 반의 담임교사가 질문지의 내용과 지시문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시작하도록 하였다. 질문지 995부가 회수되었으며, 반응의 일관성을 알아보는 지수(반복 2문항)에서 전후 2점 이상의 차이가 나거나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하고 총 724부가 최종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1차 설문이 이루어진지 2주일 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얻기 위한 2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124부가 회수되었으며,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총 94부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SPSS Program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요인분석에 앞서 다른 변수들과 크게 겹치지 않는 변수들만을 뽑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여 R^2 를 구하였다. 그리고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하위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고,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요인의 추출은 내용의 요약이 목적일 때는 공통요인모형(Common Factor Model)인 주축분석이 바람직하다고 한 이순목(2000)의 제안에 따라 주축요인 방법(Principal-Axis Factoring)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회전은 SPSS를 이용한 요인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직각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을 사용하였다. 정서경험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통하여 Pearson's r 을 산출하였다. 끝으로, 한국 아동의 정서경험에 있어서 집단간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차이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결 과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요인구조

우선, 141개의 정서 용어들 중에서 한국 아동들이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80% 이상의 아동들이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라고 응답한 용어) '끔찍하다', '무시 무시하다', '오싹하다', '징그럽다', '역겹다', '소름이 끼치다', '고통스럽다', '좌절감을 느끼다', '아찔하다', '겁먹다', '초라하다', '죄책감이 들다', '허탈하다', '쓸쓸하다', '창피하다' 등 48개의 용어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후 크게 겹치지 않는 변수들만을 뽑아서 요인분석에 사용해야 한다는 이순목(2000)의 제안에 따라 서로 얼마나 겹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수를 다른 변수들에 회귀시켜보았다. 다른 변수들

에 의해 크게 설명되는 변수, 즉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높은 변수는 다른 변수들과 중복되므로 분석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통하여 구해진 R^2 가 1에 가까운 변수들을 탈락시켰다. '마음놓다', '고맙다', '마음이 상하다', '경쾌하다', '편하다', '기분나쁘다', '재미있다' 등 30개의 용어가 의미상으로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탈락되었다.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하위요인 및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KMO 측도를 이용하여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문항들에 의해 얼마나 잘 설명되는지 알아보았다.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예비문항 63개의 KMO 측도값은 .98로 높게 나타나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Sphericity) 검사에서 검정치는 58258.04($df=1953$)이었고, 이 값의 유의수준이 .00이므로 요인분석이 가능한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판단한 다음에,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하위요인 및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축요인 방법(Principal-Axis Factoring)과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을 통한 요인분석 결과, 14번 반복계산 후 요인회전이 수렴되어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고유값(Eigen Value)이 1.00 이상인 요인수가 4개로 나왔지만, Scree 검사에서 1 요인 고유값 33.41, 2 요인 고유값 9.21, 3 요인 고유값 1.96으로 고유치의 하락정도를 고려할 때 2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요인수를 2로 지정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번 반복회전 하여 요인

표 2. 정서 용어 63개의 요인분석 결과(N=724)

정서 용어	요인		R ²	정서 용어	요인		R ²
	1	2			1	2	
100. 속상하다	.879		.879	18. 부담스럽다	.515		.282
76. 걱정스럽다	.872		.827	2. 불안하다 ^a	.461	-.463	.427
111. 우울하다	.865		.892	10. 흥분하다	.292		.089
77. 불만스럽다	.857		.820	59. 즐겁다		.901	.820
93. 지겹다	.847		.834	74. 신나다		.896	.852
78. 외롭다	.843		.811	64. 만족스럽다		.876	.798
68. 재미없다	.837		.734	85. 편안하다		.865	.845
141. 답답하다	.835		.896	135. 기분좋다		.864	.923
106. 실망스럽다	.834		.872	63. 흐뭇하다		.856	.769
66. 짜증나다	.834		.727	47. 희망차다		.836	.701
70. 밋다	.834		.777	103. 반갑다		.808	.844
84. 억울하다	.829		.821	126. 감사하다		.783	.862
112. 화나다	.824		.863	132. 흥겹다		.783	.851
128. 한심하다	.822		.884	71. 여유롭다		.779	.719
58. 두렵다	.813		.695	119. 흥미롭다		.778	.836
138. 배신감을 느끼다	.810		.882	140. 포근하다		.772	.890
87. 조급하다	.794		.795	110. 기운차다		.768	.821
46. 섭섭하다	.794		.634	107. 좋아하다		.766	.822
80. 아쉽다	.790		.790	137. 감동하다		.756	.874
130. 샘나다	.790		.877	20. 행복하다		.709	.573
57. 허전하다	.787		.643	139. 열광하다 ^a	.605	.707	.866
120. 무섭다	.784		.876	91. 들뜨다 ^a	.507	.695	.740
109. 불쌍하다	.774		.863	25. 뿌듯하다		.694	.500
42. 마음아프다	.760		.580	33. 자신만만하다		.677	.467
49. 어이가 없다	.699		.523	56. 열중하다		.589	.492
27. 후회하다	.671		.455	61. 사랑하다		.575	.482
45. 귀찮다	.656		.436	16. 정답다		.545	.356
22. 싫증나다	.649		.463	5. 안심되다 ^a	-.459	.460	.422
69. 가슴이 벅차다 ^a	.630	.524	.672	9. 자랑스럽다		.407	.215
15. 슬프다	.590		.460	19. 열정적이다		.403	.167
37. 죄송스럽다	.586		.375	고유치 합계	33.410	9.212	
26. 부끄럽다	.576		.340	분산율(%)	53.032	14.622	
31. 그립다	.562		.319	누적분산율(%)	53.032	67.654	

a 두 개 요인에 걸쳐 높은 요인 부하값을 보여 최종 탈락한 용어.
문항번호는 응답을 얻은 일련번호를 나타냄.

회전이 수렴되었다. 요인 내 정서 용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1 요인은 부정적 정서 차원으로, 2 요인은 긍정적 정서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요인 구조는 2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서 용

어 63개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하위항목을 구성하기 위해 <표 2>에 제시한 63개의 정서 용어 가운데 ‘홍분하다’만을 제외한 모든 정서 용어가 해당요인에 .40 이상의 요인 부하값을

표 3.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구성타당도

요인	정서용어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전체 신뢰도 계수	요인	정서용어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전체 신뢰도 계수
1 요 인	슬프다	.41	.98	.98 (33개)	2 요 인	한심하다	.93	.98	.97 (24개)
	부담스럽다	.42	.98			샘나다	.91	.98	
	싫증나다	.52	.98			배신감을 느끼다	.92	.98	
	부끄럽다	.55	.98			답답하다	.94	.98	
	후회하다	.59	.98			자랑스럽다	.27	.97	
	그렵다	.53	.98			정답다	.39	.97	
	죄송스럽다	.59	.98			열정적이다	.39	.97	
	마음아프다	.71	.98			행복하다	.52	.97	
	귀찮다	.63	.98			뿌듯하다	.56	.97	
	섭섭하다	.75	.98			자신만만하다	.64	.97	
	어이가 없다	.71	.98			희망차다	.78	.97	
	허전하다	.78	.98			열중하다	.68	.97	
	두렵다	.81	.98			즐겁다	.85	.97	
	짜증나다	.84	.98			사랑하다	.68	.97	
	재미없다	.84	.98			흐뭇하다	.85	.97	
	밋다	.88	.98			만족스럽다	.86	.97	
	걱정스럽다	.90	.98			여유풀다	.83	.97	
	불만스럽다	.90	.98			신나다	.90	.97	
	외롭다	.89	.98			편안하다	.91	.97	
	아쉽다	.88	.98			반갑다	.91	.97	
억울하다	.90	.98	좋아하다	.89	.97				
조급하다	.88	.98	기운차다	.89	.97				
지겹다	.91	.98	흥미롭다	.89	.97				
속상하다	.93	.98	감사하다	.91	.97				
실망스럽다	.93	.98	흥겹다	.90	.97				
불쌍하다	.90	.98	기분좋다	.95	.97				
우울하다	.94	.98	감동하다	.90	.97				
화나다	.92	.98	포근하다	.91	.97				
무섭다	.91	.98							

보였다. 62개의 용어 가운데 두 요인 모두에 걸쳐 비슷한 요인 부하값을 보이는 용어는 척도구성에서 제외하였다. 부정적 정서 차원은 1 요인에 부하값이 4.0 이상인 35개의 정서 용어 중에서 ‘가슴이 벅차다’와 ‘불안하다’가 제외되었다. 또한, 긍정적 정서 차원은 2 요인에 부하값이 .40 이상인 27개의 정서 용어 중에서 ‘열광하다’, ‘들뜨다’, ‘안심되다’가 제외되었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 차원에 속하는 용어와 긍정적 정서 차원에 속하는 용어 각각 33개, 24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총 57개의 정서 용어들로 아동용 정서경험척도를 구성하였다.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1)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2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57문항에 대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 .64($p < .01$)를 획득하였다. 각 하위 요인으로 긍정적 정서는 .76($p < .01$), 부정적 정서는 .83($p < .01$)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2)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구성타당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척도 전체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각 하위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 간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동용 정서경험척도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57개의 정서용어 문항 간의 내적 일치도는 .98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용 정서경험척도는 신뢰롭다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문항들 가운데 제 1요인(부정적 정서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정서용어 수는 33개로서, 신뢰도 분석결과 요인 내 정서 용어들 간의 내적 일치도는 .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제 2요인(긍정적 정서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정서 용어 수는 24개로서 내적 일치도는 .97로 얻어져 각 요인 내 문항 간 동질성이 입증되었다. 아동용 정서경험 척도의 각 하위 문항들 간의 구성타당도가 매우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각 하위영역별 문항-총점간 상관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3)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공인타당도

한국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해 아동의 생활 전반에 걸친 우울 정도를 측정하는 K-CDI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정서요인과 K-CDI의 총 점수 상관은 $-.74(N=94)$ 가 산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1$). 즉, 긍정적 정서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동은 우울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긍정적 정서경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아동은 우울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정서요인과 K-CDI의 총 점수 상관은 $.68(N=94)$ 가 산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1$). 즉, 부정적 정서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동은 우울척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적절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경험에서의 성별 및 학년별 차이

한국 아동의 정서경험에 있어서 집단간의 긍정적 정서경험과 부정적 정서경험의 차이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1) 성별 차이

긍정적 정서의 성별 차이

긍정적 정서에서 각 하위항목과 전체 점수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표 4>와 같다. 전체

표 4. 성별에 따른 긍정적 정서의 전체점수와 하위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긍정적 정서	남 (N=345)		여 (N=379)		전체 (N=724)		F
	M	SD	M	SD	M	SD	
자랑스럽다	2.55	.91	2.39	.81	2.46	.86	6.75*
정답다	2.86	.89	2.75	.86	2.80	.88	2.63
열정적이다	2.26	.95	2.39	.88	2.33	.91	3.81
행복하다	3.22	.88	3.11	.82	3.16	.85	2.85
뿌듯하다	2.94	.91	2.70	.94	2.81	.93	11.38**
자신만만하다	2.50	.90	2.25	.82	2.37	.87	15.34***
희망차다	2.93	.96	2.80	.86	2.86	.91	3.42
열중하다	2.46	.95	2.50	.91	2.48	.93	0.44
즐겁다	3.31	.87	3.11	.88	3.21	.88	9.44**
사랑하다	2.43	1.11	2.77	1.04	2.61	1.09	17.90***
호뭇하다	2.92	.99	2.80	.90	2.86	.95	2.76
만족스럽다	3.05	.89	2.73	.93	2.89	.93	22.03***
여유티다	2.64	.95	2.45	.89	2.54	.92	7.68**
신나다	3.16	.91	2.91	.97	3.03	.95	12.92***
편안하다	2.90	.98	2.71	.96	2.80	.98	6.81**
반갑다	2.84	1.00	2.75	.94	2.80	.97	1.52
좋아하다	2.78	1.03	2.86	.95	2.82	.99	1.19
기운차다	2.58	1.08	2.38	1.00	2.48	1.04	6.68*
흥미롭다	2.67	1.08	2.44	1.02	2.55	1.06	8.35**
감사하다	3.08	.96	2.90	0.94	2.99	0.95	6.85**
흥겹다	2.52	1.09	2.50	1.02	2.51	1.05	0.04
기분좋다	3.22	.88	3.03	.96	3.12	.93	7.60**
감동하다	2.46	1.00	2.37	.97	2.41	.98	1.47
포근하다	2.41	1.06	2.51	1.01	2.46	1.04	1.71
전체	2.78	.60	2.67	.60	2.72	.60	5.63*

* $p < .05$ ** $p < .01$ *** $p < .001$

점수에서 남아가 평균 2.78($SD = .60$), 여아가 평균 2.67($SD = .60$)로, 남아가 긍정적 정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F = 5.63, p < .05$). 각 하위항목별로 성별에 대한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일하게 ‘사랑하다’만이 여아의 점수($M = 2.77$)가 남아의 점수($M = 2.43$)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 = 17.90, p < .001$). 그 외는 남아가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만족스럽다’, ‘자신만만하다’, ‘신나다’가 가장 높은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p < .001$), ‘뿌듯하다’, ‘즐겁다’, ‘흥미롭다’, ‘여유티다’, ‘기분좋다’, ‘감사하다’, ‘편안하다’ 순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부정적 정서의 성별 차이

부정적 정서에서 각 하위항목과 전체 점수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표 5>와 같다. 전체 점수에서 여아가 평균 1.97($SD = .61$), 남아가 평균 1.80($SD = .59$)으로, 여아가 부정적 정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높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F = 14.69, p < .001$). 각 하위항목별로 성별에 대한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섭섭하다’, ‘속상하다’, ‘마음아프다’, ‘짜증나다’, ‘우울하다’, ‘슬프다’, ‘외롭다’, ‘생나다’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매우 높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 < .001$).

2) 학년별 차이

긍정적 정서의 학년별 차이

긍정적 정서에서 각 하위항목과 전체 점수의 학년에 따른 차이는 <표 6>과 같다. 전체

표 5. 성별에 따른 부정적 정서의 전체점수와 하위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부정적 정서	남 (N=345)		여 (N=379)		전체 (N=724)		F
	M	SD	M	SD	M	SD	
슬프다	1.60	.80	1.86	.84	1.74	.83	18.14***
부담스럽다	1.82	.86	1.88	.86	1.85	.86	1.08
싫증나다	1.86	.91	1.97	.90	1.92	.91	2.68
부끄럽다	1.72	.86	1.83	.81	1.77	.83	3.15
후회하다	1.98	1.02	2.00	.95	1.99	.99	.12
그립다	2.18	1.10	2.35	1.07	2.27	1.09	4.08*
죄송스럽다	2.14	1.00	2.07	.93	2.10	.97	1.21
마음이 아프다	1.63	.85	1.97	.97	1.81	.93	24.79***
귀찮다	2.21	1.07	2.33	1.04	2.27	1.06	2.38
섭섭하다	1.76	.88	2.12	.97	1.95	.95	27.36***
어이가 없다	2.00	1.03	2.03	.97	2.02	1.00	.12
허전하다	1.92	.98	2.11	.97	2.02	.98	6.43*
두렵다	1.61	.87	1.79	.92	1.71	.90	6.83**
짜증나다	1.96	1.02	2.33	1.04	2.15	1.04	23.46***
재미없다	1.72	.93	1.92	.95	1.83	.95	7.86**
밧다	1.66	.87	1.85	.95	1.76	.92	8.36**
걱정스럽다	1.82	.93	2.03	.99	1.93	.97	9.18**
불만스럽다	1.76	.94	1.94	.97	1.85	.96	6.45*
외롭다	1.60	.88	1.89	.99	1.75	.95	17.65***
아쉽다	1.87	.98	1.97	.95	1.92	.97	2.09
억울하다	1.84	1.01	1.83	.93	1.83	.97	.01
조급하다	1.85	.94	2.00	.95	1.93	.95	4.63*
지겹다	1.90	1.01	2.00	1.00	1.95	1.01	1.64
속상하다	1.75	.91	2.11	1.03	1.94	.99	25.10***
실망스럽다	1.69	.84	1.84	.94	1.77	.90	4.85*
불쌍하다	1.67	.91	1.76	.87	1.72	.89	1.97
우울하다	1.60	.86	1.91	1.02	1.76	.96	19.74***
화나다	1.81	.94	2.00	.99	1.91	.97	6.64*
무섭다	1.55	.82	1.63	.83	1.59	.82	1.47
한심하다	1.79	.93	1.87	.90	1.83	.92	1.27
샘나다	1.71	.91	1.99	.98	1.86	.96	16.59***
배신감을 느끼다	1.77	.97	2.02	1.06	1.90	1.03	11.14**
답답하다	1.80	.96	1.97	.99	1.89	.98	5.55*
전체	1.80	.59	1.97	.61	1.89	.60	14.69***

* $p < .05$ ** $p < .01$ *** $p < .001$

점수에서 5학년 아동이 평균 2.75($SD = .60$), 6학년 아동이 평균 2.69($SD = .61$)로, 5학년 아동이 긍정적 정서에서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 = 1.83, p > .05$). 각 하위항목별 학년별 차이에서는 ‘뿌

표 6. 학년에 따른 긍정적 정서의 전체점수와 하위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학년 긍정적 정서	5학년 (N=396)		6학년 (N=328)		전체 (N=724)		F
	M	SD	M	SD	M	SD	
자랑스럽다	2.43	.86	2.50	.86	2.46	.86	1.23
정답다	2.84	.91	2.75	.83	2.80	.88	2.18
열정적이다	2.28	.91	2.40	.91	2.33	.91	3.17
행복하다	3.20	.84	3.11	.86	3.16	.85	2.24
뿌듯하다	2.88	.93	2.74	.93	2.81	.93	4.14*
자신만만하다	2.36	.87	2.39	.87	2.37	.87	.16
희망차다	2.88	.93	2.84	.89	2.86	.91	.22
열중하다	2.42	.95	2.56	.90	2.48	.93	4.01*
즐겁다	3.27	.87	3.13	.88	3.21	.88	4.33*
사랑하다	2.65	1.10	2.55	1.07	2.61	1.09	1.68
흐뭇하다	2.89	.94	2.82	.96	2.86	.95	1.09
만족스럽다	2.95	.94	2.80	.91	2.89	.93	4.91*
여유롭다	2.57	.95	2.51	.89	2.54	.92	.72
신나다	3.08	.99	2.97	.90	3.03	.95	2.25
편안하다	2.87	.98	2.71	.97	2.80	.97	5.10*
반갑다	2.86	.94	2.73	1.00	2.80	.97	3.26
좋아하다	2.82	1.03	2.83	.94	2.82	.99	.03
기운차다	2.51	1.08	2.44	1.00	2.48	1.04	.85
흥미롭다	2.56	1.07	2.54	1.04	2.55	1.06	.04
감사하다	3.04	.93	2.92	.97	2.99	.95	2.97
흥겹다	2.56	1.07	2.45	1.03	2.51	1.05	1.76
기분좋다	3.19	.92	3.05	.93	3.12	.93	4.01*
감동하다	2.43	.98	2.38	.98	2.41	.98	.38
포근하다	2.48	1.05	2.44	1.02	2.46	1.04	.28
전체	2.75	.60	2.69	.61	2.72	.60	1.83

* $p < .05$

듯하다’, ‘즐겁다’, ‘만족스럽다’, ‘편안하다’, ‘기분좋다’의 경우, 5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p < .05$). 다만, ‘열중하다’에서는 6학년 아동($M = 2.56$)이 5학년 아동($M = 2.42$)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그 결과가 유의미하였다($F = 4.01, p < .05$).

부정적 정서의 학년별 차이

부정적 정서에서 각 하위항목과 전체 점수의 학년에 따른 차이는 <표 7>과 같다. 전체

표 7. 학년에 따른 부정적 정서의 전체점수와 하위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학년 부정적 정서	5학년 (N=396)		6학년 (N=328)		전체 (N=724)		F
	M	SD	M	SD	M	SD	
슬프다	1.70	.82	1.79	.84	1.74	.83	2.24
부담스럽다	1.80	.86	1.92	.85	1.85	.86	3.50
싫증나다	1.85	.89	2.00	.93	1.92	.91	4.82*
부끄럽다	1.72	.84	1.84	.82	1.77	.83	3.31
후회하다	1.89	.94	2.11	1.03	1.99	.98	8.92**
그렵다	2.20	1.10	2.35	1.07	2.27	1.09	3.23
죄송스럽다	2.07	.94	2.15	.99	2.10	.96	1.35
마음아프다	1.77	.93	1.86	.92	1.81	.93	1.98
귀찮다	2.13	1.05	2.44	1.04	2.27	1.06	15.26***
섭섭하다	1.86	.95	2.05	.94	1.95	.95	7.53**
어이가 없다	1.91	.99	2.15	1.00	2.02	1.00	10.74**
허전하다	1.93	.95	2.12	1.00	2.02	.98	6.84**
두렵다	1.70	.92	1.71	.88	1.71	.90	.02
짜증나다	2.07	1.04	2.25	1.04	2.15	1.04	5.47*
재미없다	1.77	.93	1.90	.96	1.83	.94	3.80
밋다	1.70	.90	1.83	.95	1.76	.92	3.31
걱정스럽다	1.85	.97	2.03	.96	1.93	.97	6.01*
불만스럽다	1.78	.95	1.94	.96	1.85	.96	4.77*
외롭다	1.67	.91	1.85	1.00	1.75	.95	6.59*
아쉽다	1.86	.95	2.00	.99	1.92	.97	3.70
억울하다	1.82	.99	1.86	.94	1.83	.97	.32
조급하다	1.85	.92	2.01	.97	1.93	.95	5.08*
지겹다	1.89	1.01	2.03	1.00	1.95	1.01	3.72
속상하다	1.87	1.00	2.02	.98	1.94	.99	3.98*
실망스럽다	1.72	.90	1.82	.89	1.77	.90	1.90
불쌍하다	1.68	.87	1.77	.92	1.72	.89	1.89
우울하다	1.71	.95	1.83	.97	1.76	.96	2.55
화나다	1.87	.97	1.95	.97	1.91	.97	1.31
무섭다	1.56	.83	1.63	.82	1.59	.82	1.31
한심하다	1.78	.94	1.89	.88	1.83	.92	2.48
샘나다	1.80	.94	1.93	.98	1.86	.96	3.41
배신감을 느끼다	1.84	1.00	1.98	1.05	1.90	1.02	2.99
답답하다	1.82	.96	1.96	1.00	1.89	.98	3.68
전체	1.83	.61	1.97	.59	1.89	.60	9.31**

* $p < .05$ ** $p < .01$ *** $p < .001$

점수에서 5학년 아동이 평균 1.83($SD = .61$), 6학년 아동이 평균 1.97($SD = .59$)로, 6학년 아동이 5학년 아동보다 부정적 정서경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보였다($F = 9.31, p < .01$). 각 하위항목별에서도 6학년 아동이 5학년 아동보다 부정적 정서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귀찮다’는 6학년($M = 2.44$) 아동이 5학년($M = 2.13$) 아동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그 차이가 가장 유의미하게 드러났다($F = 15.26, p < .001$). 또한 ‘후회하다’, ‘섭섭하다’, ‘어이가 없다’, ‘허전하다’ 모두 유의미한 결과로 드러났다($p < .01$).

논 의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도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아동용 정서경험척도는 최종 57문항으로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의 2요인이 추출되었다. 외국에서 영어의 어휘들 가운데 정서 용어들을 선정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Russell과 Ridgeway(1983)는 정서 구조를 유쾌(pleasure)-불쾌(displeasure)와 각성(arousal) 2차원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차원은 정서의 특성을 측정하는 반면에, 유쾌-각성 정서 차원은 정서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이주일, 1998; Watson 등, 1988)는 의견에서 본 연구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Russell과 Ridgeway(1983)의 연구는 아동들에게 오늘(today)의 기분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정서상태(emotional state)를 측정한 것으로 유쾌-각성 정서 차원으로 도출된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정서 용어들에 대해 요즈음

자신이 느끼는 정도를 물어봄으로써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정서의 특성(emotional trait)을 측정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차원으로 도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서의 특성을 측정한 다른 연구들(안신호 등, 1993; 홍창희, 2004; Emmons & Diener, 1985; Watson 등, 1988; Watson & Tellegen, 1985)에서 정서경험의 구조를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두 차원으로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결과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2주 간격의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전체 척도에서 .64($p < .01$)를 획득하였다. 각 하위 요인으로 긍정적 정서는 .76($p < .01$), 부정적 정서는 .83($p < .01$)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4~8주 간격의 재검사에서 .68-.89($p < .05$)에 이르는 신뢰도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홍창희, 2004; Watson 등, 1988)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와 준거척도인 K-CDI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 정서 요인, 부정적 정서 요인 각각 -.74, .68의 상관을 획득하였다.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하여 우울성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성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한국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정서경험으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서

성별, 연령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긍정적 정서의 전체 점수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F = 5.63, p < .05$). 각 하위항목별 점수에 있어서는, '사랑하다'만이 유일하게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다른 항목에서는 남아가 대체적으로 다소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정적 정서의 전체 점수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높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F = 14.69, p < .001$). 각 하위항목별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차에 대한 긍정적 정서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행복한 것으로 보고한 연구(Diener 등, 1999)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녕(well-being)을 경험하기가 쉽다는 연구 결과(Zahn-Waxler, Crick, Shirtcliff, & Woods, 2006)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지만 긍정적 정서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한 연구들(Argyle, 2005; Braun, 1977; Cameron, 1995)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라 하겠다. 긍정적 정서경험의 빈도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부정적 정서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자주 경험한다고 보고 한 국내 연구(차경호, 1999)와 비교하여 볼 때, 긍정적 정서의 성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부정적 정서의 성차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경험으로 세부정서인 우울을 측정한 한국판 소아우울척도 개발(조수철,

이영식, 1990) 연구에서는 우울 전체점수에서 성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부정적 정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경험을 유쾌함-불쾌함의 포괄적으로 측정하였으나, 조수철과 이영식(1990)의 연구에서는 정서경험에서 일부분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추측할 수 있다. 추후 이 부분에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의 전체 점수에서 5학년 아동이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1.83, p>.05$). 다만, ‘열중하다’에서는 6학년 아동이 5학년 아동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나머지 5개 항목에서 5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리고 부정적 정서의 전체 점수에서 6학년 아동이 5학년 아동보다 부정적 정서경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F=9.31, p<.01$). 각 하위항목별 ‘귀찮다’, ‘섭섭하다’, ‘어이가 없다’, ‘허전하다’, ‘후회하다’, ‘외롭다’, ‘속상하다’ 등에서 6학년 아동이 5학년 아동보다 부정적 정서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동시에 유발되는 혼합 정서 이해의 발달이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유경, 민경환, 2000)에서 본 연구의 학년차이에 대한 결과를 짐작해 볼 수 있다. 5학년 아동이 부정적 정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자신의 정서경험

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거나 인지적으로 개념을 통합하는 능력의 발달이 미비하여 실제로 경험을 했을지라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슬픔,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대인관계 갈등, 특히 친구와의 갈등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보고한 연구(김경희, 1997)에서 본 연구의 학년 차이를 살펴보았다. 6학년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하루 중에 학교에서 또래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이러한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손쉽게 그러나 폭넓은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초등국어사전을 이용하여 한국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표현하는 용어들을 선정하여 목록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예비조사에서 뜻을 모르고 있는 단어들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아동들이 뜻을 알고 있다고 한 용어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정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서 용어들을 가지고 한국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정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요즈음 자신이 느끼는 정서경험을 토대로 아동용 정서경험척도를 제작하였으므로 단일 시간구조만으로 정서경험을 평가했다는 아쉬

움이 있다. 또한 정서관련 조사는 응답자의 반응태도와 조사 직전에 경험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moment), 오늘(today), 과거 몇 일 또는 몇 주(past few days or few weeks), 일반적으로(general) 등 다양한 상황에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 (1996). 한국 청년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1), 1-14.
- 김경희 (1997). 한국 아동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43-56.
- 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부정적 정서 조절 방략에 관한 연구: 정서 종류와 개인 변인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16.
- 박찬옥 (1990). 아동의 정서인지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지, 4(2), 37-64.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3). 정서의 구조: 한국어 정서단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07-123.
- 유경, 민경환 (2000). 아동의 혼합 정서 이해의 발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91-104.
- 이만영, 이홍철 (1990). 형용사 서술 의미의 구조에 관한 연구: 정서관련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2(1), 118-138.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정미, 이양희 (2005).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MSLSS)의 심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121-137.
- 이주일 (1998). 체험정서와 표현정서의 심리적 효과.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훈구 (1997). 한국인의 긍정적 정서. 심리과학, 6(2), 45-60.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임전옥, 장성숙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59-275.
- 조수철, 남민 (1994). 소아와 청소년의 행동장애와 우울, 불안증상과의 상호관계. 대한신경정신의학, 33(6), 1273-1282.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 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6.
- 차경호 (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개인 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 성향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0(2), 193-216.
- 최태경 (2005). 동아 연세초등국어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서울: 두산동아.
- 한덕웅, 강혜자 (2000). 한국어 정서 용어들의 적절성과 경험 빈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63-99.
- 홍창희 (2003). 정서경험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정서표현성의 매개모델 검증.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창희 (2004). 한국 정서경험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771-787.
- Arend, R., Gove, F. L., & Sroufe, L. A. (1979). Continuity of individual adaptation from infancy to kindergarten: A predictive study of ego-resiliency and curiosity in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50*, 950-959.
- Argyle, M. (2005). 행복심리학 [*The Psychology of Happiness*]. (김동기, 김은미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1에 출판)
- Averill, J. R. (1975). A semantic atlas of emotional concepts.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5*, 330.(Ms. No. 421).
- Braun, P. M. W. (1976). *Psychological Well-being and Location in the Social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Bryan, T., & Bryan, J. (1991). Positive mood and math performance.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4*, 490-494.
- Bryan, T., Mathur, S., & Sullivan, K. (1996). The impact of positive mood on learning. *Learning Disabilities Quarterly, 19*, 153-162.
- Cameron, P. (1995). Mood as an indicant of happiness: Age, sex, social class, and situ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31*, 117-124.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Suh, E., Lucas, R.,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Ekman, P. (1992). An argument for basic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6*, 169-200.
- Emmons, R. A., & Diener, E. (1985).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 89-97.
- Emmons, R. A., & Diener, E. (1986). Influence of impulsivity and sociability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211-1215.
- Fredrickson, B. L. (2002). Positive Emotions. In C. R. Snyder & Shane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120-13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endolla, G. H. E. (2000). On the impact of mood on behavior: An integrative theory and a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 378-408.
- Harter, S. (1977). A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children's expression of conflicting feelings and a technique to facilitate such expression in play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417-432.
- Harter, S. (1986). Cognitive-developmental processes in the integration of concepts about emotions and the self. *Social Cognition, 4*, 119-151.
- Harter, S., & Buddin, B. J. (1987). Children's understanding of simultaneity of two emotions: A five stage developmental acquisition sequ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388-399.
- Kashdan, T. B. (2004). The assessment of subjective well-being (issues raised by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1225-1232.
- Killgore, W. D. (2000). Evidence for a third factor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in a college student sample. *Perception motor Skills, 90*, 147-152.
- Kvaal, S. A., & Patodia, S. (2000). Relations among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and somatic symptoms in medically ill patient sample. *Psychological Report, 87*, 227-233.
- Masters, J. C., Barden, R. C., & Ford, M. E. (1979). Affective states, expressive behavior, and learning in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80-390.
- Matas, L., Arend, R. A., & Sroufe, L. A. (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Mayer, J. D., Salovey, P., Kaufman, S. G., & Blainey, K. (1991). A broader conception of mood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1), 100-111.
- Melvin, G. A., & Molloy, G. N. (2000). Som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among Australian youth. *Psychological Report, 86*, 1209-1212.
- Mikulincer, M. (1997). Adult attachment style and

- information proc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curiosity and cognitive 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17-1230.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Plutchik, R. (2004). 정서심리학 [*Emotions and Life: Perspectives form Psychology, Biology, and Evolution*]. (박권생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3에 출판)
- Roberts, M. C., Brown, K. J., Johnson, R. J., & Reinke, J. (2002). Positive psychology for children: Development, Prevention, and Promotion. In C. R. Snyder & Shane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63-7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ussell, J. A. (1980). A circumflex model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61-1178.
- Russell, J. A., & Ridgeway, D. (1983). Dimensions Underlying Children's Emotion Concepts. *Developmental Psychology*, 19(6), 795-804.
- Watson, D., & Clark, L. A. (1984). Negative affectivity: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al states. *Psychological Bulletin*, 96, 475-490.
- Watson, D., & Clark, L. A. (1991). Self-versus-peer ratings of specific emotional traits: evidence of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927-940.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Watson, D., & Tellegen, A. (1985). Toward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98, 219-235.
- Zahn-Waxler, C., Crick, N. R., Shirlcliff, E. A., & Woods, K. E. (2006).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in Females and Males. In Dante Cicchetti & Donald J. Cohen(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p.76-138).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Zevon, M. A., & Tellegen, A. (1982). The structure of mood change: An idiographic/nomothetic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11-122.
-

1차 원고 접수 : 2006. 10. 15

수정 원고 접수 : 2006. 11. 22

최종게재결정 : 2006. 11. 27

Reliability and validity of Children's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ale (CPANAS)

Eun Kyoung Lee

Yanghee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The first purpose was to construct the Children's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ale (CPANAS). For this purpose 141 preliminary terms were administered to 724 children in grades 5 through 6.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rate on a 4-point scale the extent to which they had recently experienced each emotion stat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factor analyses. Result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a two-factor structure: Negative Affect, Positive Affect. Children's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ale was constructed with the 57 emotion terms including 24 terms for Positive Affect and 33 terms for Negative Affect. The second purpose was to check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onstructed scale. In order to do this, test-retest reliability, internal consistency and concurrent validity checks were conducted. The same test was administered in two weeks. Test-retest reliability was .64(Pearson's r), with sub-scale reliability for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being .76 and .83 respectively. Internal consistency for the entire 57 items was .98(Cronbach's α), with .97 for positive affect and .98 for negative affect. The scale was compared with K-CDI to test for concurrent validity and proved to be -.74 with positive affect and .68 with negative affect. Virtually all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ale and K-CDI supported the validity of Children's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ale.

Keywords: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ubjective well-be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